



제62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23일)

청자실에서 듣는 동화 ‘사금파리 한 조각’

우수연 | 303호 청자실 | 18:00~18:30

‘학자들은 이 세상의 고귀한 단어들을 읽어내지. 그러나 너하고 나는 세상 그 자체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한다.’

사금파리는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재미 교포 린다 수 박은 결혼 후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던 중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상 뉴베리상을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목이는 부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신 후, 삼촌이 사는 줄포의 조그만 바닷가 마을로 왔지만 삼촌은 이미 거기에 살지 않아 다리 밑에 사는 두루미아저씨와 살게 됩니다. 쓰레기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을 마련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목이는 가끔 진흙과 나무로 지은 집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민영감님을 숨어서 훑쳐보았습니다. 기적이 벌어지듯 진흙덩어리는 물레판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다가 점차 키가 커지면서 둥글게 변했고, 어느 순간 완벽한 도자기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영감님의 계시지 않는 작업실에 홀리듯 들어간 목이는 줄무늬를 새긴 길쭉한 참외 모양 물주전자와 상자를 만져보다가 그만 영감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무섭게 화가 난 민영감님, 겁이 질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한껏 조아린 목이. 목이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동화 ‘사금파리 한 조각’ 12세기 중반~후반 서해안의 작은 마을인 줄포를 배경으로 청자를 만드는 빼어난 도공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나의 멋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예술혼을 불태웠던 도공들과, 그들로부터 도자기를 주문해 사용했던 왕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어린 목이가 도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청자가 가득한 청자실에서 고려시대 목이의 모험을 따라가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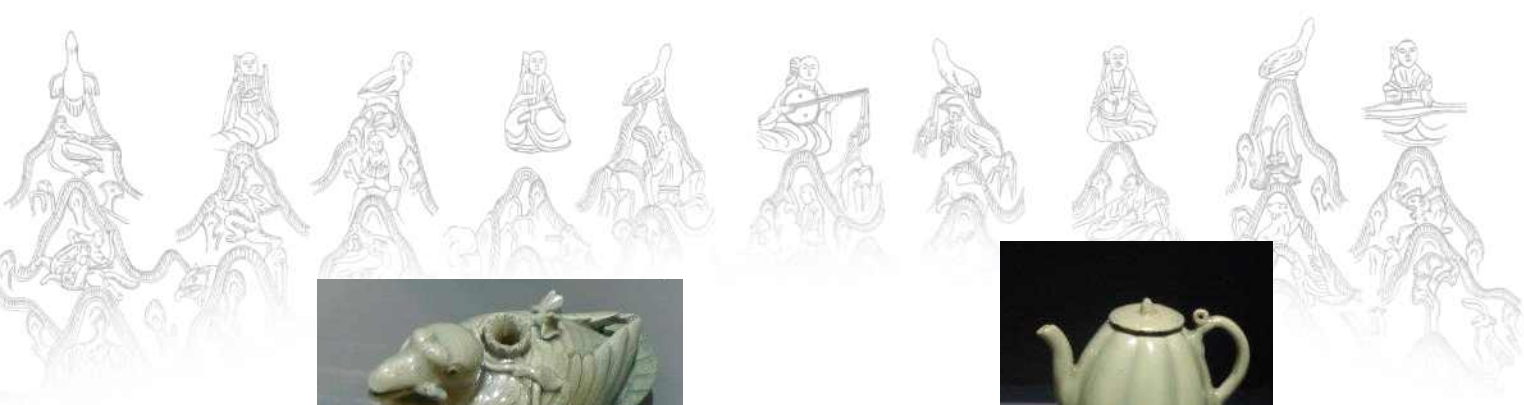


그림 1. 청자압형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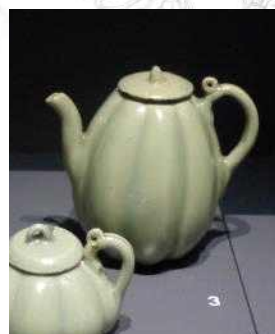


그림 2. 청자과형주자



그림 3. 청자상감국화문탁잔



그림 4. 청자상감국모란문과형병

제62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9년 1월 23일)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특별전: 염소를 공격하는 맹수 모양 굴레장식

강건우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카자흐스탄 동부 베렐 쿠르간에서 출토된 기원전 4세기경의 굴레장식입니다. 장식에 나타난 염소를 공격하는 맹수 모양은 ‘스키토-시베리아Scytho-Siberia’ 동물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은 유목민 예술의 특징적인 양식으로 각 동물들의 특성, 예컨대 강한 다리, 화려한 날개,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이빨 등이 뛰어나게 표현됩니다. 대체로 문신과 같은 신체 예술, 의복, 마구, 의례용 물품과 무기 등에서 나타납니다.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은 강력한 영적 의미와 고도로 복잡한 기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신화적 동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처럼 뻗은 사슴뿔, 강인한 육식동물의 몸, 새의 날개와 날카로운 부리 등을 융합하여 그리핀과 같은 환상적 괴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물의 사실적 표현과 이를 결합한 환상적 동물의 표현은 유목민 예술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동물들 간에 먹고 먹히는 투쟁 장면은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가장 인기 있는 주제로 다양한 유물의 장식 모티프로 활용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스키토-시베리아 동물양식의 영향을 받은 말모양 허리띠고리, 호랑이모양 허리띠고리, 쌍조형 칼자루끝장식 등 다양한 문화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림 5 특별전 포스터



그림 6 염소를 공격하는 맹수 모양 굴레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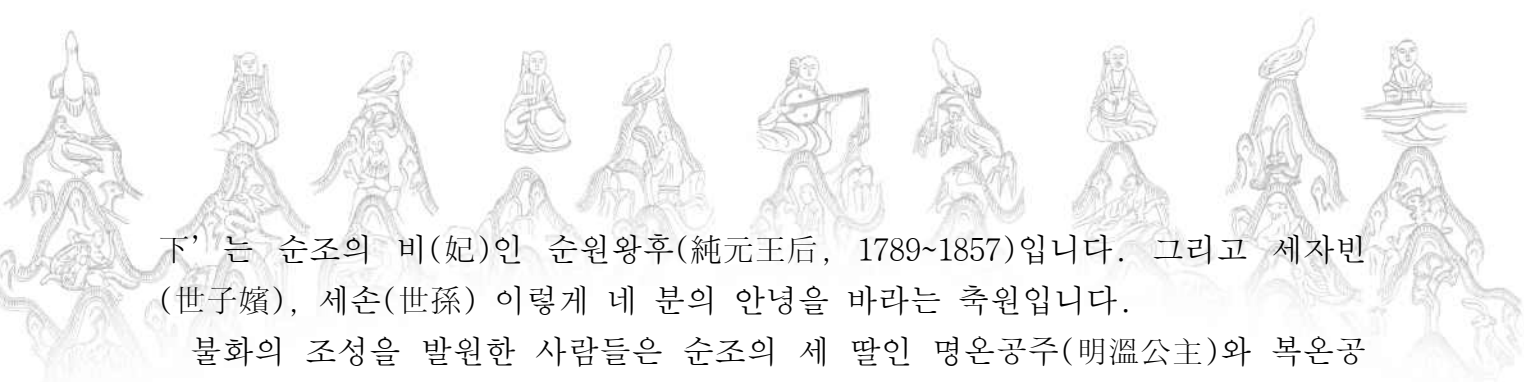
아미타불회도를 발원한 세 공주

유경희 | 203호 불교회화실 | 19:00~19:30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와 부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는 아들과 세 딸을 두었습니다. 순조가 국왕이 되어 정사(政事)를 보았던 19세기 초반에는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정치(勢道政治)가 행해져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조의 아들이자 훗날 효명(孝明)이라는 시호(諡號)를 받는 당시의 왕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도정치를 억제하고 왕정(王政)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지만, 21세의 이른 나이로 홍서(薨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슬픔은 매우 크고 깊었을 것입니다. 불화는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세상을 뜬 다음 해에 조성되었습니다. 부처가 앉아있는 대좌의 아래쪽 방형의 판에는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문구(祝願文句)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主上殿下庚戌生李氏聖壽萬歲 王妃殿下己酉生金氏聖壽齊年 嬪宮邸下戊辰生趙氏壽命千秋 世孫邸下丁亥生李氏鳳閣千秋.” 이 네 줄의 축원 대상은 왕실의 인물들입니다. ‘主上殿下’는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를 의미하며 ‘王妃殿下’



도1. <아미타불회도>, 경옥(慶郁) 등, 조선 1831년, 134.8×183.3cm, 덕수448



下’는 순조의 비(妃)인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입니다. 그리고 세자빈(世子嬪), 세손(世孫) 이렇게 네 분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입니다.

불화의 조성을 발원한 사람들은 순조의 세 딸인 명온공주(明溫公主)와 복온공주(福溫公主), 그리고 덕온공주(德溫公主)입니다. 화기에는 세 공주를 ‘坤命庚午生李氏 坤命戊寅生李氏 坤命壬午生李氏’로 적고 있습니다. 즉 ‘명온공주’라고 적는 대신 ‘곤명 경오생 이씨’라고 적어 이름대신 생년(生年)을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곤명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어 상궁(尙宮)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왕실 인사들의 기원을 담아 불화의 제작을 수행한 사람들은 상궁이었습니다. 불화 제작을 주도한 이는 상궁 최씨로 화기에는 ‘引勸奉命 尙宮崔氏 尙宮辛卯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딸과 상궁들은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나고 슬픔으로 가득했을 왕실의 안녕을 위해 불화를 조성하도록 발원한 것입니다. 불화에는 일찍 세상을 떠난 왕세자가 극락세계에서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8)

채해정 | 기획전시실 | 19:00~19:30

고려의 수도 개경은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 신도시였습니다.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숨 쉬던 경주와 달리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한반도에 다양한 문화를 전해주었던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한 국가의 중심 도시가 되자 당의 수도 장안이 그랬듯이 주변 국가의 물산이 개경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송 상인이 전해주는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이국적인 물품이나 재료는 고려인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고려와 주변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로 청동 거울을 들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무덤에서는 거울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이전 시대보다 사용한 사람들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에서 제작된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거울도 사용했습니다. 거란 소자小字로 시가 쓰여 있거나 화염보주가 장식된 거울은 요遼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문의 칠언 절구 형식에 따라 28자로 쓴 시는 선악을 구별하는 거울 같은 존재는 신뢰할 만한 벗과 같아서 항상 옆에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그림1). 한편 거울 테두리에 “금성관기장”이라고 새긴 거울은 금소에서 제작한 것입니다(그림2). 명문은 금나라의 해당 관청 관리가 이 거울을 검수한 기록인 험기驗記입니다. 나무에 기댄 여인이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 물고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거울 뒷면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소주蘇州”가 쓰인 거울도 송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이 제품의 품질만 보증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1. 거란 소자가 쓰인 거울
요, 지름 15.7cm, 덕수287



그림2. “금성관기장金城官記匠”이 쓰인 거울
금, 지름 9.7cm, 덕수1404